

예수님 이야기

⑥ 오병이어

나 레 이 셴 어느~날! 예수님은 함께 엄청나게 엄청난 복음을 열렬하게 열심히 전하느라 지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예 수 님 도저히 안 되겠다. 오늘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.
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
너희들도 고생이 정말 많구나...

나 레 이 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.

목 격 자 1 이봐 저~기 배에 타신 분 보여? 예수님 아니신가?

목 격 자 2 잠깐만, 어? 그런거 같은데? 옆에는 제자들이고!!!

목 격 자 3 그럼 우리도 저 배를 따라 한번 가볼까?

벧새다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!! 내가 지름길을 알아!! 가자! 가자!

베 드 로 여기... 한적하다고 하지 않았어? 아,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?
어떻게 알고 왔지? 우리보다 빨리 오다니...

사 람 들 예수님... 예수님... 배고파요... / 저 허리가 아파요... / 저는 다리가 아파요... / 저 좀 고쳐주세요... 도와주세요... / 예수님 우리도 만나주세요. / 우리도 하늘나라 이야기 들려주세요. / (어린이) 진~~ 짜 배고파요...

(웅성웅성)

나 레 이 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서 내리자 마자 미리 와서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

예수님은 힘들고 배고팠던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.

예 수 님 이 사람들은 꼭 목자가 없는 양과 같구나...

나 레 이 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셨습니다.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갈 즈음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.





베 드 로 예수님, 여기는 허허벌판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.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이라도 사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예 수 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.

제 자 들 (어이 없어하며) 헐~....

베 드 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요?
그럼 3천만원 아니 한 이백 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씀입니까?

예 수 님 ... 그러면 너희는 이곳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.

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잠시 후,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

요 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찌에끄만한 떡 다섯 개랑 멸치 같은 물고기 두 마리, 이게 전부입니다.

예 수 님 그래... 이리 줘봐라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쪽 넓은 잔디 위에 앉게 하거라.

.....

베 드 로 딸랑 떡 다섯 개랑 멸치만한 물고기 두 마리로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거야..?

야 고 보 나도 몰라..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....

나 레 이 셴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.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.

예 수 님 날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~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아멘.
자, 이제 가서 나누어주거라.

제 자 들 에..? 네.. 떡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제 물고기.. 하나, 둘... 이제 오병이어는 끝...! 이 아닌데? / 어? 있는데? / 오.. 있어? 더 있다고? / 있어 있어!! 대박!! / 여러분 여기 떡과 물고기 있습니다!! 잠시만 기다리세요!! 저희가 모두 나누어 드릴게요!!

나 레 이 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는 12바구니나 되었고 그날 떡을 먹은 남자 어른의 숫자만도 5,000명이었습니다.